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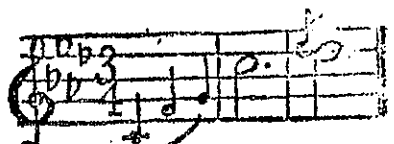








# 朝鮮洋樂의 夢幻의 來歷 3 瓠子式의 大音樂堂의 異彩



洋人이나 官吏에 木曜日演奏會  
「學禮院」과 「李王職」으로 남는다  
高皇帝의 賓天 후에 殉葬의 最後解散  
二十年間의 歷史가 感慨無量한 國情의 副本

## 元來洋樂의 輸入이

고종 兩班의 功樂과 公園을 演習하는  
노르 樂隊를 爲하여 八角亭을 演習하는  
것이다. 一般民衆의 公益을 爲하기는  
姑捨하고 每年約二個月 동안은 每週木  
曜日午後 音樂演奏會를 開演하고 洋  
人이나 間或各官廳官吏에 對한 公開하  
였다. 그는 그 때라 하고 俄가 變하여 相  
單案이 解雇되어 歸國하고 日本人目  
賀田種太郎男이 度支部顧問官이 되어 一  
般軍人의 俸給制를 改定하여 倍額을 支  
拂하는 關係로 軍樂隊 獎勵에 對하여 用力  
하였다. 八千圓이라는 大金을 投하여  
多種의 樂器를 亦是 雜也 納(納)하여 樂  
器會社에서 購入하고 樂卒에 對하여 每  
朔百圓의 獎賞金을 支給하는 同時에 公  
園의 周圍를 擴張한 後 八角亭은 反響  
이 甚하여

## 響音이 不良하다고

只今 藤原을 演習하는 데다가 廿坪이나  
瓠子式(일파아지)으로 木製大音樂堂  
을 세우고 公園을 開放하여 演奏會를  
開演할 때에도 一般에 公開하였다. 이  
것이 所謂 樂病을 알리는 符號를 塔宮公  
園 열락아지로 되게 하는 符號가 되었다.  
한 서을 도련남의 演習에서 나오게 된  
出處이었다. 그러나 그 後 每年 修繕을  
하지 않으면 未久에 頹落하여 形跡도  
없어지고, 只今 音樂堂은 龍山 公團에  
附屬 軍樂隊가 解散된 後 龍山 公園에 있  
는 音樂堂을 廢기다가 노는 것이다. 그  
리하여 그 後에도 昨年까지 每年 關하  
지 않고 演奏會를 繼續하여 왔으나 今年 關  
은 事情에 依하여 못하였다 한다. 그러  
나 이리 못 皇室의 恩寵과 官憲의 庇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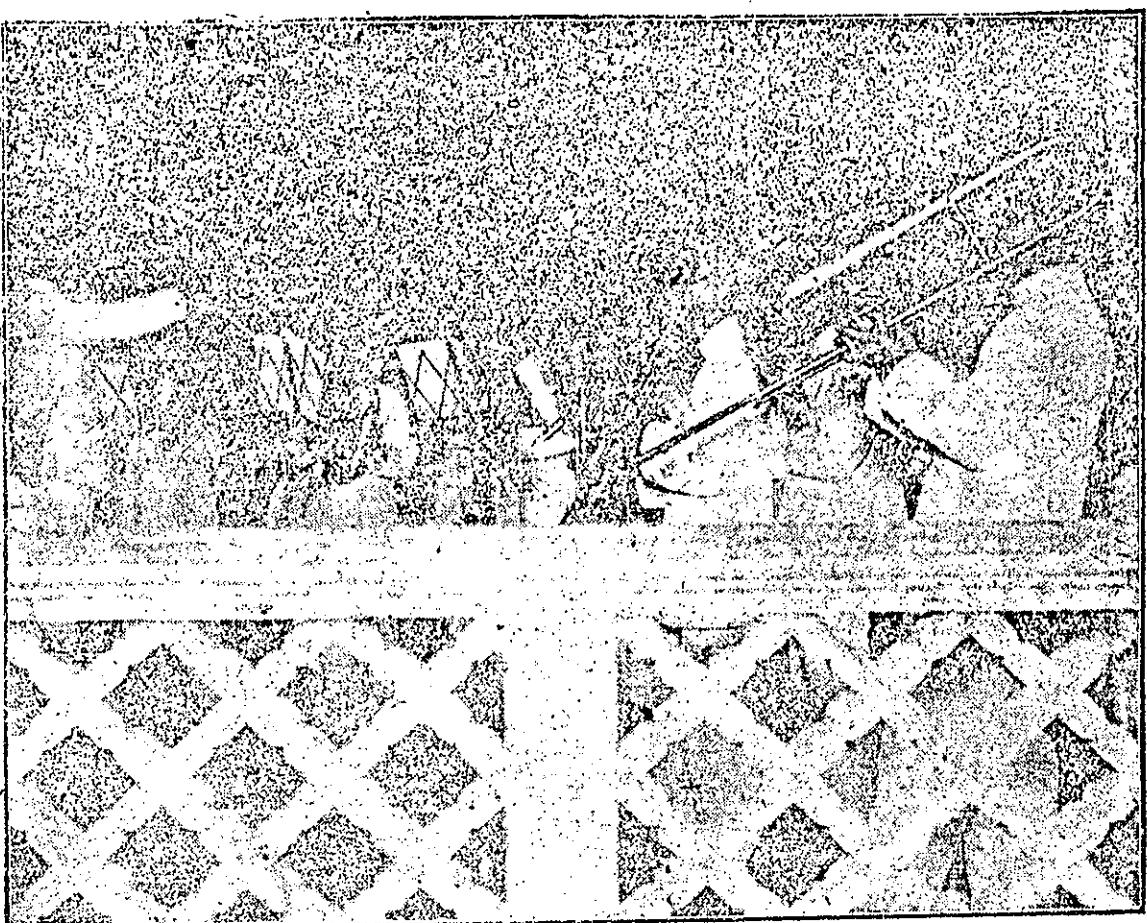
## 厄運에 對한 隆熙元年

로 順路로 成長하면 우리 洋樂隊도 春  
花秋月에 가가고 오고는 동안에 五箇星期  
은 當가리 演習하지 않고 어는  
이 다다라왔다. 隆熙元年 八月 1 이  
이 무슨일이었는가. 朝鮮을 軍國主義  
에서 解除(?)하는 날이었다. 이리케  
말하면 朝鮮이 일어난 世界思潮에서  
압하고 朝鮮의 幸福은 이로써 永世에  
保障되었다 하겠다. 그러나 아니다. 아  
니다. 이 말은 瀕死의 朝鮮으로 하여금  
最後의 運命을 運轉한 날이었다. 朝鮮軍  
隊의 解散! 그것은 強×압해선 良民의  
護身具를 빼앗아 간 것과 다를 바 없었다.  
아모리 朝鮮의 軍隊가 紙冠木刀의 兒戲  
가 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어  
한 境遇에 있어서 獲刀만은 할 것이다.  
그러나 저러나 이 隆熙元年 八月 1 朝  
鮮의 軍隊 그 最後의 運命이 變하여 버  
다. 그리던 當時 銳氣 激發한 半島 男兒의  
悲憤慷慨의 愛國之士의 心事가 어찌하  
았을가는 이제 말할 것도 없거니와 何如  
問 朝鮮의 軍隊가 解散되매

## 軍隊는 軍樂이란

青春의 自覺을 일고 墓穴로 들어가 는 老  
婦의 哀고리에 늘어는 노리개라. 말을  
어 統할 自覺이 없으니 軍樂隊長 短劍을 무  
소 所用이 없소. 이에 去年 九月에는  
五歲의 生育을 하는 우리 洋樂隊도 다  
는 厄運에서 헤어나지 못하여 四散되매,  
남은 樂卒 五十人을 糾合하여 宮內府 樂  
禮院 附屬으로 다시 組織하여 禮禮院 音  
樂隊라 이름하니 軍樂卒은 樂手로 軍  
樂隊長은 樂師라 칭칭치 안을 수 없  
었다. 이와 가리 말하자면 世態가 한

공화국이 國步가 더욱더 艱難한 지라  
關內의 侍令이 漸漸 드물어질 것은 分明  
한 일인데는 英親王 楊鶴의 부로실도 없  
스런 나와 軍部 將領 賀田氏가 支拂하  
는 樂手 獎賞金을 削減하였다. 그러는 나  
는 薄俸으로 는 生計를  
二 薄俸으로 는 生計를  
薄俸이 있는 지라 한사 말 두사 말 오지



景光是 樂奏가 隊樂城京의 在現

부지다라다가 休職을 하네 活動을 眞樂  
수가 되네 하야 樂隊의 衰微는 到底 挽  
回할 機會가 없었다. 그늘이나라 已往  
에는 公使官이나 大官이 樂隊를 使用  
하랴면 大內의 裁可를 받기 前에는 無  
可奈何이 었스나 只今은 禮禮院 卿의 手  
中之物이 되어 左之右之하게 되어 아모

二 僅僅한 殘命을 保全  
케 하였다. 그러나 그 翌年에는 「에케르」  
氏를 解雇하고 小宮次官代로 國分象太  
郎氏가 李王職次官에 就任한 이후로는  
欠員이 있어서도 補缺치 안했스나 이는 不  
不攻이 自滅의 常習手段을 取한 것이었다  
이 가리 極度로 衰微하는 중에 「에케르」  
氏는 大正六年에 旭町 自宅에서 猝然히  
逝去하여 楊花津에 安葬하였스나 朝  
鮮洋樂의 有功者일 줄이나 다 指導者인  
「에」氏를 일흔 樂壇은 決코 多幸할 것이  
아닐은 勿論이다. 그러나 그이 翌年 九月  
에 李太王의 昇遐後에는 李太王 殿下  
에서 在位時代에 內藏院 秘書로 부러 下賜  
한 例의 四千圓條를 「에케르」氏로 부러

## 開天節에

開天節에 김 선 랑

十月이라 初三日에 瑞雲이 어리서자  
늘린 때 瑞雲에 김 선 랑이 나오니  
萬民이 한맘으로 받들어 남극을 삼으  
니라.  
어진 德을 삼고 밝은 德을 기공하여  
산공고를 밝은 곳에 세나라지오시니  
아름해 빛난다 하야 朝鮮이라 하니라  
피져지다 김의 子孫 千世 萬代 피져지다  
살어지다 이리에서 與天 無窮 살어지다  
가다가 여가 바람이야 잊은 달이여  
하리.  
引繼하였다가 樂隊員一同에게 願給하  
고 드디어 樂隊를 解散하였스나 解散  
當時는 人員은 不過三十餘人이었다. 有  
爲 轉變은 人間의 免치 못할 일이라 할지  
나, 案에 倚하여 가만히 우리 樂壇의 過  
去二十年史를 回顧할際 果然 今昔의 感  
이 不無하다. 閑忠正의 손으로 樂器를 輸  
入할 부러 決코 偶然한 事가 아니어든  
이로써 朝鮮人에게 音樂의 天才가 있을  
을 發見한 이 洋樂隊가 今日에 廢止되고  
四方에 흐르러져 그 形跡이 사라져 버  
렸을고 노는 事 同情의 淚를 禁할 수 있  
스며 哀惜의 情을 抑할 수 있스리오. 또  
한 우리 洋樂隊의 盛衰가 오로지 그 內  
面의 國情과 行한 善惡과 實로 感  
慨無量한 바이다.

